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관련 요인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중심으로

이경은¹, 박효진^{2*}

^{1,2}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yung-Eun Lee¹, Hyo-Jin Park^{2*}

^{1,2}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교육 과정에서 이들 요인의 향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3.65 ± 0.70 점, 윤리적 의사소통 자신감은 3.67 ± 0.75 점, 간호전문직관은 3.77 ± 0.72 점, 인간중심간호는 4.10 ± 0.76 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을 보였고, 인간중심간호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009$,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할수록, 인간중심간호 태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among nursing students. It aimed to identify the level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erson-centered nursing. The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The mean scores were 3.65 ± 0.70 f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3.67 ± 0.75 for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77 ± 0.72 , and person-centered nursing was 4.10 ± 0.76 . Person-centered nursing showed the highest score among the variables. Person-centered nursing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F=6.009$, $p<.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erson-centered nursing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ducation,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Person-Centered Care

*Corresponding Author : Hyo-Jin Park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Tel: +82-51-320-2932 email: parkhj@kit.ac.kr

Received July 10, 2026. Revised July 19, 2026 Accepted July 30, 202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보건의료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며, 간호사는 전문적인 임상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 능력과 인간중심적 돌봄 역량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1]. 특히 인간중심간호(person-centered care)는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반응을 인정하고,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대상자와 소통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말하며, 간호서비스 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2-3].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전문직 정체성과 직업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핵심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4-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문직 준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7].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간호전 문직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 학습 환경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8].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은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환자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이는 환자안전과 직결된다[1, 9].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 부적절한 판단과 돌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10].

한편,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에 대한 신념과 가치체계로서 간호사의 전문성 확립과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4-5]. 전문직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진로 불확실성과 직업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1]. 마지막으로, 인간중심간호는 환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가치로, 환자 만족도와 치료 결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임상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네 요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교육 과정에서 이들 요인의 향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B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아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권리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요인이 10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17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21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 Taylor[1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Betz 등[1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타당화하고, Lee와 Lee[1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2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본 연구에서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은 Sulmasy 등[16]이 개발한 도구를 Laabs[1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Kim[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3] 이 개발한 도구를 Kim[18]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4 인간중심간호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간호는 Lee[1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rogram 27을 이용해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분석을 위해 Sheffé tes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65명(82.5%)으로 남자 35명(17.5%)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1학년이 61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20대가 130명(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10대가 40명(20.0%), 30대 이

상이 30명(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59명(29.5%), 그리고 3학년이 51명(25.5%), 2학년이 29명(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05명(52.5%), 보통이 87명(43.5%)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3.0-3.5 미만이 79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3.5-4.0 미만이 64명(32.0%), 4.0 이상이 44명(22.0%), 3.0 미만이 13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과 선택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86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적성 및 취미 69명(34.5%), 주변의 권유 45명(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는 무가 111명(55.5%)으로 유 89명(44.5%)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5	17.5
	Female	165	82.5
Age (year)	Teenagers	40	20.0
	Twenties	130	65.0
	30s and older	30	15.0
Grade	1st year	61	30.5
	2nd year	29	14.5
	3rd year	51	25.5
	4th year	59	29.5
Major discipline	Less than 3.0	13	6.5
	3.0 to less than 3.5	79	39.5
	3.5 to less than 4.0	64	32.0
	4.0 or higher	44	22.0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Aptitude and interest	69	34.5
	Employment	86	43.0
	Recommendation	45	22.5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05	52.5
	Moderate	87	43.5
	Not satisfied	8	4.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111	55.5
	Yes	89	44.5

3.2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의 점수 분포는 Table2와 같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3.65 ± 0.70 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은 3.67 ± 0.75 점, 간호전문직관은 3.77 ± 0.72 점, 인간중심간호는 4.10 ± 0.76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erson-Centered Care (n=200)

Variables	Mean	SD	Min	Max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65	0.07	1.56	5.00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3.67	0.75	1.67	5.00
Nursing Professionalism	3.77	0.72	1.78	5.00
Person-Centered Care	4.10	0.76	1.52	5.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간의 차이는 Table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는 전공만족도($F=6.009$, $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높았다.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대, 성별, 학년, 학업성적, 지원동기, 임상실습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Person-Centered Care (n=200)

Variables		Mean	SD	Min	Max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65	0.07	1.56	5.00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3.67	0.75	1.67	5.00
Nursing Professionalism		3.77	0.72	1.78	5.00
Person-Centered Care		4.10	0.76	1.52	5.00
Variables	Categories	M±SD	F/t(p)	scheffe's	
Gender	Male	4.16±.84	.052	-	
	Female	4.08±.74	(.950)		
Age (year)	Teenagers	4.07±.80	.593	-	
	Twenties	4.09±.76	(.554)		
	30s and older	4.13±.73			
Grade	1st year	4.13±.70	1.514 (.212)	-	
	2nd year	3.84±.79			
	3rd year	4.07±.80			
	4th year	4.20±.76			
Major discipline	Less than 3.0	4.17±.63	.516 (.672)	-	
	3.0 to less than 3.5	4.07±.74			
	3.5 to less than 4.0	4.16±.77			
	4.0 or higher	3.99±.81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Aptitude and interest	3.71±.68	1.503 (.203)	-
	Employment	3.60±.68		
	Recommendation	3.63±.74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a	4.20±.74	6.009 (.001)	a>b,c
	Moderate ^b	3.72±.69		
	Not satisfied ^c	3.46±.6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111	.998 (.319)	-
	Yes	89		

3.4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r=.795$, $p<.001$), 간호전문직관($r=.722$, $p<.001$), 인간중심간호($r=.71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에서 간호전문직관($r=.713$, $p<.001$), 인간중심간호($r=.65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서 인간중심간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768$,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erson-Centered Care (n=200)

Variabl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p)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Person- Centered Care r(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795 ($p<.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722 ($p<.001$)	.713 ($p<.001$)	1	
Person-Centered Care	.710 ($p<.001$)	.655 ($p<.001$)	.768 ($p<.001$)	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3.65 ± 0.70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의 연구에서 평균 3.50-3.71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통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함께 최근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취업 시장의 경쟁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지역적,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의 평균 점수는 3.67 ± 0.75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0]의 연구에서 평균 3.40 ± 0.49 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F=2.907$, $p=.036$)가 나타난 것은 고학년일수록 임상실습과 윤리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노출되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여 학년을 올라가면서 윤리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고 교수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윤리적 판단력이 향상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는 3.77 ± 0.72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21]의 연구에서 평균 3.43 ± 0.47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간호학과 입학 시부터 간호전문직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에 간호전문직관도 비교적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의 평균 점수는 4.10 ± 0.76 으로 네 변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2]의 연구에서 125점 만점에 평균 98.36 ± 9.55 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과정에서 인간 존중과 전인적 돌봄에 대한 가치관이 잘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의 본질적 가치인 돌봄과 인간 존중이 학생들에게 잘 내재화되어 있지만, 인간중심간호의 적절한 실천 방법과 올바른 돌봄 태도의 교육 및 국가와 대학의 전문적인 개입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 역시 인간중심간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F=6.009$, $p<.001$), 이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이 환자를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고 돌보려는 간호관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간중심간호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여성 특성상 돌봄과 공감 능력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민감하고 배려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과 각 변수의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든 변수의 점수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 경험이 축적되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795, p<.001$), 이는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윤리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됨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r=.722, p<.001$)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인간중심간호의 상관관계($r=.710, p<.001$)는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환자중심적 돌봄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할수록, 인간중심간호 태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인사결정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역량 향상이 다른 역량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역량 향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본부 차원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전문직 정체성 실태를 조사하여 고위험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 수준에 노출된 대상자들을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년별로 차별화된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저학년에서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고학년에서는 실제 임상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역량들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정으로 인식하고,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인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진로 준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불성실한 응답자 30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65 ± 0.70 점, 윤리적인사소통자신감은 3.67 ± 0.75 점, 간호전문직관은 3.77 ± 0.72 점, 인간중심간호는 4.10 ± 0.76 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간호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전문직 역량이 양호한 수

준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인간중심간호는 전공만족도($F=6.00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윤리적인 의사소통자신감($r=.795$, $p<.001$), 간호전문직관($r=.722$, $p<.001$), 인간중심간호($r=.71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윤리적인 의사소통자신감은 간호전문직관($r=.713$, $p<.001$), 인간중심간호($r=.65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인간중심간호($r=.76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윤리적인 의사소통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인간중심간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역량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역량 간의 관련성을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년별 변화 양상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윤리적인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이 간호 실무 역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S. G. Park, Effects of Hospital Ethical Climat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nurse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Dongguk University,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22).
- [2] Morgan S, Yoder LH.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2012), Vol.30, No.1, pp.6-15. DOI: 10.1177/0898010111412189
- [3] Sagong H, Lee GE.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6), Vol.27, No.4, pp.309-318. DOI: 10.12799/jkachn.2016.27.4.309
- [4]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 Vol.35, No.6, pp.1091-1100.

- [5] D. S. Lim,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 Vol.35, No.4, pp.715-723.
- [6]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 Vol.84, No.2, pp.191-215.
- [7] J. Y. Hwang, M. N. Ko,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5), Vol.22, No.5, pp.1-23.-
- [8] E. H. Hwang, C. M. Hong, S. J. Shin,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 Vol.18, No.3. pp.1729-1740.
- [9] M. Jung, Ethical leadership of nurse managers and nurse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6), Vol.19, No.1, pp.74-86. DOI: 10.35301/ksme.2016.19.1.74
- [10] J. H. Kim, Relationships among ethical dilemma,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nurs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14).
- [11] S. H. Ko, B. R. Jeo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 Vol.10, No.3, pp.335-344.
- [12] J. Y. Kang, E. J. Shin, Relationship between person-centered nursing and family satisfaction in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19), Vol.12, No.3, pp.1-12. DOI: 10.34250/jkccn.2019.12.3.1
- [13]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96), Vol.4, No.1, pp.47-57. DOI: 10.1177/106907279600400103
- [14] N. E. Betz, M. S. Hammond, K. D. Mult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ive-level response continua for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05), Vol.13, No.2, pp.131-149. DOI: 10.1177/1069072704273123

- [15] H. J. Lee, K. H.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 Vol.12, No.1, pp.127-136.
- [16] D. P. Sulmasy, G. Geller, G. M. Levin, R. R. Faden, Ethical conflict in the care of patients with do-not-resuscitate order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990), Vol.5, No.4, pp.345-349.
- [17] C. A. Laabs,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12), Vol.33, No.1, pp.10-14. DOI: 10.5480/1536-5026-33.1.10
- [18] M.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08).
- [19] J. J. Lee, A study on nurses' experiences of person-centered nursing: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centered nursing assessment t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18).
- [20] J. O. Yoon,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ocial capital, active coping strateg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aegu Haany University,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18).
- [21] Y. S. Ha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11).
- [22] Y. J. Park,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work environment, empathic competence, and person-centered nursing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Dissertation, (2023).